

시스템글꼴

[인테리어]

까사리빙

간결한 선이 돋보이는 중정형 주택, 빛을 머금은 집 HOUSE



집의 한가운데 하늘을 가득 담아내는 붉은 벽돌집. 올곧고 단단한 첫인상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서 순간 총명한 빛으로 녹아내린다. 갤러리 같은 공간 속 다양한 변주가 숨어 있는 집, 몸도 마음도 한창 크는 세 아이가 있는 집이다.

가족의 삶과 중정을 품은 벽돌집



의견 76건이 있습니다



김종호의 디자인가이드-2017...
FEATURE



운동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다,...
HEALTH



가장 제주도다운 여행지, 월령...
SPACE



향과 예술이 공존하는 곳, 진틀...
SPACE



프리미엄 감성의 오피스, 스텝...
SPACE



온화한 장식과 조명의 디테일,...
LIFESTYLE



희로애락을 품은 삶의 율타리,...
LIFESTYLE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자,...
FOOD



네 가지 분위기를 담은 테이블,...
STYLE



주방에 활기를 불어넣는, 티 타...
ITEM

까사리빙 더보기

세로 줄눈 없이 쌓은 벽돌이 한층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을 준다.

차고를 향해 바라본 중정의 모습. 목재로 마감한 슬라이딩
도어로 필요에 따라 마당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요구 조건이 만만치 않은 집이었어요.” 설계를 맡은 민우식 소장의 첫마디에 집 짓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리라 강하게 확신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오히려 최지욱, 이정현 건축주 부부의 분명한 요구 사항과 취향이 작업을 혼선 없이 수월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 건축가와 건축주의 집에 대한 생각과 스타일이 잘 맞아 떨어진 것도 한 몫 했다.

운중동 단독주택 단지에 집을 짓겠다고 찾아온 최지욱 씨가 내민 요구 사항은 하나같이 명쾌했다. 중정형 주택 일 것, 차량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를 만들 것, 다섯 식구를 위해 방은 반드시 4개 이상일 것. 보통의 집과 비교했을 때 같은 면적 안에서 충족시켜야 할 요소가 많아 이를 효율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설계의 관건이었다.



대지 형태를 따라 지은 집. 사선으로 만나는 지점에도 군더더기 없이 이어지는 벽돌 마감의 완성도가 놀랍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인 중정형 구조는 이 동네에서 유난히 자주 보인다. 그 이유는 지구 단위 계획상 담장을 설치할 수 없는 이곳 단독주택 단지 상황과 맞닿아 있다. 행인이나 이웃집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겐 별로 달갑지 않은 규정이다. 도로와 접한 면은 창을 최소화하고 집 중앙에 있는 마당을 향해 창을 내는 중정형 주택은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이 집의 가족에게도 잔디 깔린 넓은 마당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바닥에 석제 타일을 깔아 관리하기 쉽고 다섯 식구가 오붓하게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아담한 마당이면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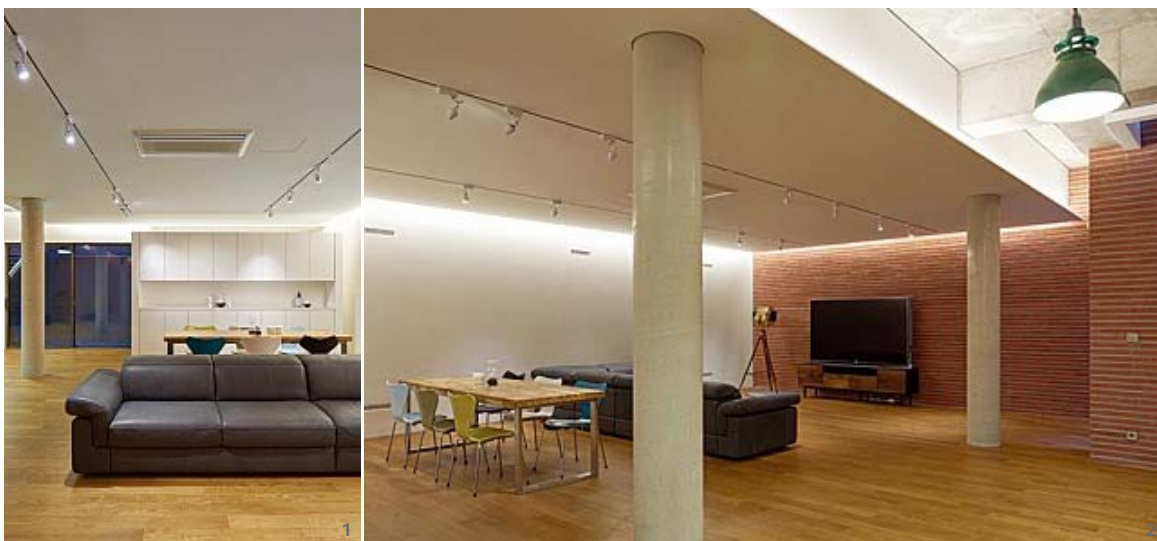
지하 같지 않은 지하를 만드는 법



1층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실을 별도로 두어 천장이 오픈된 구조를 이용해 채광 효과를 극대화했다. 건축주 최지옥 씨가 취미로 연주하는 드럼이 눈에 띈다. 빈티지 펜던트 조명은 그동안 모은 수집품 중 하나.

차량 2대를 위한 차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1층 면적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지하층. 1층 거실의 면적을 차고에 양보한 대신 지하를 넓게 구성해 거실 겸취미실을 만들었다. 하나를 해결하고 나니 또 다음 과제가 이어졌다. 어둡고 습하게 마련인 지하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구멍을 띄워주는 것이 필요했다. ‘지하 같지 않은 지하’를 만들기 위해 민우식 소장은 2개의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 채광과 통풍을 위해 지하에서 외부와 직접 통하게 만든 영역)를 조성하고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따로 분리했다.

사실 효율적인 공간 활용만을 생각하면 지하에서 다락까지 계단 하나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단이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을 별도로 배치해 천창과 지상층에서 들어오는 빛을 충분히 받아들 이고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면적을 추가로 할애해서라도 지상층 못지않은 지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이다.



1 소파 너머로 테이블과 장식장이 보인다. 장식장 뒤에는 수납을 위한 창고가 숨어 있다. 그 옆 전면 창은 환기와 채광을 위한 드라이 에어리어와 연결된다.

2 지인과 모임을 즐기는 응접실, 거실, 취미실로 사용하는 지하층은 시원한 공간감을 자랑한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 손색없을 정도로 드넓은 이 공간은 지하층이란 사실을 금세 잊을 정도로 쾌적하다. 드라이 에어리어와 별도의 계단실은 비정형의 대지 형태와 맞물려 삼각형의 오픈 공간과 천창을 만들고 공간에 재미를 더하는 결과를 덤으로 가져다주었다. “앞으로 조금씩 모아온 빈티지 가구나 조명 등으로 하나둘 채워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집을 짓고 나니 전에 없던 소소한 즐거움이 생겼죠(웃음).” 어제도 집을 짓는 데 함께한 이들과 이곳에서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말을 잇는 건축주 부부의 표정이 전에 없 이 환하다.



1층 다이닝 룸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실을 향해 바라본 모습. 높낮이와 선에 변화를 준 천장 디테일이 인상적이다. 가로 창,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늘 환하다.

설계 4개월, 공사 기간 8개월 이상의 긴 여정을 마치고 완공한 집에 입주한 건 작년 11월. 난이도 높은 공정이 많아서 그런지 시공에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 가로 줄눈만 넣어 쌓은 벽돌 외장, 시공하기 까다로운 부위의 내부 벽돌 마감까지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공법에 한여름 무더위까지 견뎠지만 완성도 높은 집을 위해 벽을 뜯어내고 다시 작업하기를 수차례. 그결과 계단 판과 벽돌 벽이 만나는 부분, 천장의 조명 박스 디테일, 난간 손잡이 등 보통 집에 서는 보기 어려운 정교한 디테일이 구사되었다.



일자로 펼쳐진 주방과 그 옆으로 보이는 중정.

“저도, 아내도 유행 쫓아가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가구나 소품 하나도 심플한 걸 좋아하죠. 민 소장님과의 그런 부분이 잘 맞았어요.” 그리고 보니 안팎으로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 지는 집이 주인을 톡 닮았다. 단순한 선과 벽돌, 나무, 화이트 컬러의 적절한 조합으로 만들 어낸 모던한 집에 또 하나의 디자인 요소가 되어주는 건 바로 ‘햇빛’. 중정에서, 천장에서, 길게 낸 가로 창과 발코니에서 집 안 곳곳 깊숙이 따뜻하고 환하게 찾아드는 별은 시시각각 다른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 풍경 자체로 하나의 근사한 인테리어가 되는 셈이다.



내추럴한 분위기의 11차 주방 한쪽에는 지하층으로 음식을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했다.

사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실 쪽 외벽에 길게 낸 창은 처음 계획엔 없었던 것이다.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선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창을 내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집을 짓던 중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본 풍경에 반해 생각을 바꾸었다고.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초록이 담긴 창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바꾸길 참 잘했다며 몇 번이고 생각한다는 부부다.

다양한 높낮이가 주는 일상의 즐거움



- 1 안방 욕실에 낸 천창.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 석제 타일이 은은한 빛을 받아 더욱 세련된 느낌이다.
- 2 천창을 통해 떨어지는 빛과 나지막한 욕조가 있는 욕실에서 부부는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낸다.
- 3 안방으로 향하는 복도의 모습. 욕조를 매립하기 위해 안방만 바닥을 조금 들어 올렸다. 복도에 계단이 생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향하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도 든다.

부부가 집을 짓기로 결심한 건 순전히 아이들 때문이다. 한창 뛰어놀 시기의 아이들이 층간 소음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기가 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부부를 단독주택의 삶으로 이끌 었다. 아이가 셋이나 되다 보니 집 안에 아기자기한 요소를 넣을 법도 한데, 깨끗하고 단정한 갤러리 같은 디자인을 고수한 것은 이곳에서 보낼 삶을 길 게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현명하 다고 판단했다. 대신 현관, 주방, 침실, 거실 등의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천장 높이, 하늘이 담긴 창 등 한층 풍부해진 공간 경험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한다.



- 1 전면 창으로 채광이 좋은 안방. 가운데에 화장대 겸 수납장을 두어 드레스 룸을 분리하고 TV를 달 수 있는 가벽으로 활용했다.
- 2 안방 침대 옆에는 테라스로 가는 문이 있다. 블랭킷, 사이드 테이블은 챔터원. 블루 화병과 그레이 쿠션은 마요. 베이지 쿠션과 화이트 캔들은 자라홀.

이 집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건 같은 2층에서도 안방에 가려면 야트막한 계단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처음 부터 부부는 안방 욕실에 높이가 낮은 매립 욕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 했다. 그러려면 욕조를 문틀 최소한의 공 간 확보를 위해 아래층의 천장 높이를 낮춰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단독주택은 무조건 천장이 높아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실, 식당과 같은 공용 공간은 천장이 높은 게 좋고 침실은 오히려 천장이 높지 않아야 아늑하고 편안하죠.” 민우식 소장은 아래층 천장 높이를 낮추 는 대신 안방의 바닥을 60cm 정도 들어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복도 계단은 바로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덕분에 1층 주방 및 식당은 층고를 유지해 시원한 공간감을 확보하고 안정감 있는 높이로 아늑한 침실, 매립 욕조까지 모두 실현할 수 있었다. 각 공간의 성격에 맞는 설계 아이디어가 빛나는 대목이다.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집, 하진건



2층 아이들 방에는 천장 일부를 높게 터서 다락의 박공지붕 형태를 그대로 담아냈다. 니트 선인장 화분은 윤현헨즈. 여우와 코끼리 쿠션, 블랭킷은 모두 챔터원.

2층에는 욕실이 딸린 안방과 2개의 아이 방, 세탁실, 욕실이 자리한다. 아이들 방은 천장을 높이 오픈해 다락의 박공지붕을 그대로 들었다. “둘째, 셋째는 좀 더 크면 원하는 공간을 따로 꾸며주려고 해요.” 첫째 딸 주하가 분홍색으로 꾸민 방을, 아들 무진, 무건이가 하늘색으로 꾸민 방을 함께 쓴다. 매일 밤 상상력이 자라날 것만 같은 공간에 괜히 부러운 맘이 들던 참이었는데, 자기 방만 없다는 막내 무건이의 귀여운 투정이 이어졌다. 책장이 있는 열린 공간과 방으로 나뉜 다락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곧 장난감, 책이 가득한 아이들만의 공간이 되어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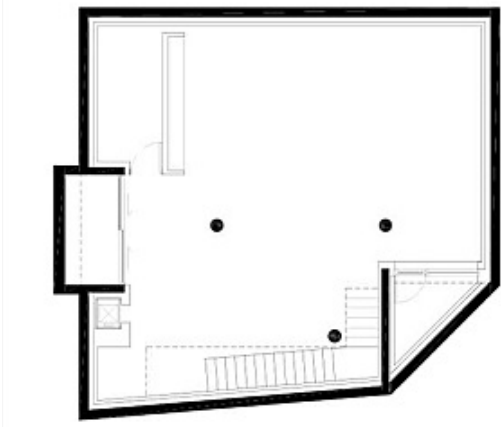


1층에서 다락까지 이어지는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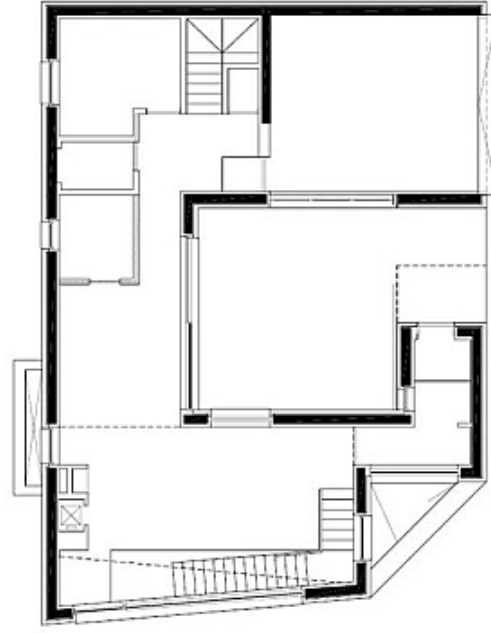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줄 다락방. 니트 선인장 화분, 컬러 풀한 베이스는 모두 윤현헨즈.

사람들이 어떤 작품이나 건축물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은 색깔, 그다음이 형태다. 스케일과 비례 같은 변화는 바로 인지하기 쉽지 않다. 현관 바닥, 거실 천장, 계단 등의 높이 변화 그리고 채광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공간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체득하게 된다. 민우식 소장은 “눈에 바로 들어오는 화려함보다 정교한 디테일과 비례감이 주는 차이를 살면서 두고두고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있는 집을 짓고자 했다”고 전했다. 재료나 형태의 변화보다 스케일과 비례감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은근하고 강렬한 법. 새집에서 생활한 지 이제 3개월 남짓이지만 건축주 가족은 앞으로 매일 하나씩 집의 매력을 발견해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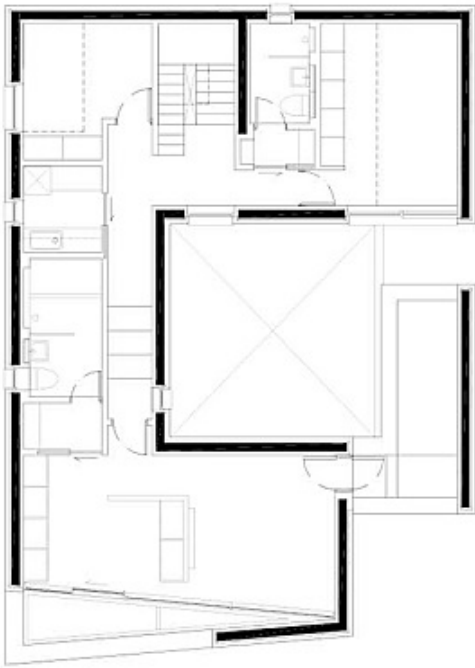
집을 짓고 부부는 ‘하진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 아이의 이름 ‘주하’, ‘무진’, ‘무건’에서 한 글자씩 따온 이름이다. 클 하, 참 진, 세울 건. 어느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아니하겠느냐마는, 아이들에 대한 크고 참된 뜻을 담아 집을 지었 다는 그 의미가 새삼 감동스럽다. 설계 민 워크샵(02-735-1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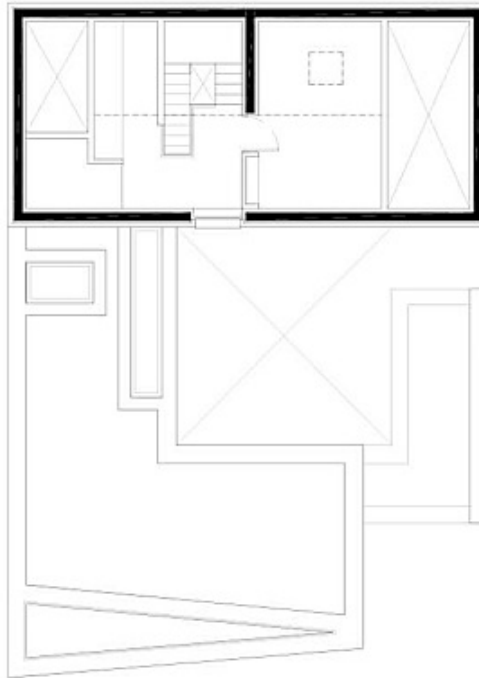
지하 1층



1층



2층



다락

HOUSE INFO

대지면적	246.2m ² (74.47평)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다락
건축면적	123.15m ² (37.25평)
연면적	295.66m ² (89.43평)
주차대수	2대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마감재	쇄석 채움, 컬러 강판
단열재	네오폴 120mm, 180mm
외벽 마감재	시멘트벽돌
창호재	필로브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설계	민 워크샵(민우식, 이현주, 노연지)
시공	(주)사람중심건설(이정우, 박재현)
내벽 마감재	수성페인트, 시멘트벽돌
바닥재	원목 마루
타일	석제 타일
욕실기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주방가구	데꼬레 제작가구(김종훈)
계단재	오크 원목

41

구독



제공 **CASA**
NO.1 리빙&라이프스타일 매거진
www.casaliving.co.kr

22,993 정기구독 최신기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 전체 [인테리어](#)
매거진 전체 [리빙/육아](#) [까사리빙](#)

의견 76 수정문의

bolshe7979
오타 및 잘못된 내용은 수정문의로 신고해주세요. 주제와 무관한 의견,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500

BEST의견 전체의견

녹
채광 좋은 넓은 지하실이 있는 집을 짓고 싶었는데 참고가 될거같네요 스크랩해갑니다 :3
13시간 전 신고

럭키스트라이커김정우
자 프로배아플러들 댓글보러왔습니다 ^^
13시간 전 신고

something for nothin
집 진짜 이쁘네요 외관으로볼때는 무슨 갤러리같다
16시간 전 신고

충주
내부는 좋고, 외관은 컬러도 디자인도 그닥 별로..특히 과일나무랑 정원가꿀 마당에 없어서 아쉽다.....
17시간 전 신고

송 백
준 전원형주택이고, 대지도 여유로운데... 왜? 주택은 안락하고, 편안해야 하는데.....
17시간 전 신고

답글 심심해 0 2

돈 만 있으면 똥들 못하리.....

18시간 전 신고

답글 5 2

Kuk

실내는 이쁘디. 외관은 그닥

19시간 전 신고

답글 2 7

노블레스

슈퍼마리오에서 보던 성 같네요방, 주방, 거실 구성은 좋은 듯 보입니다.

19시간 전 신고

답글 3 0

park****

언제 저런집에 한번 살아보나..

19시간 전 신고

답글 6 0

DOBAL

개고생해서 대출받아 겨우겨우 아파트 장만해보니 닭장이었구나 ㅋㅋㅋㅋ

19시간 전 신고

답글 7 0

1 2 3 4 5 6 7 맨뒤